"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the Romanticist

RACHMANINOFF

KBS교향악단 제790회 정기연주회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Pietari Inkinen
피아노 | 안나 비니츠카야 Anna Vinnitskaya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 더클래스효성

2023.05.25. (THU) 20:00 롯데콘서트홀

Etiquette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

1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2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3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4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5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the Romanticist

RACHMANINOFF

Program

라흐마니노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43 22'
S. Rachmaninoff |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43

인터미션 Intermission 15'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e단조, 작품27 52'
S. Rachmaninoff |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1악장 매우 느리게 – 조금 빠르게 (16')
Largo – Allegro moderato

2악장 매우 빠르게 (11')
Allegro molto

3악장 침착하고 느리게 (13')
Adagio

4악장 빠르고 활기차게 (12')
Allegro vivace





©Andreas Zihler



PIETARI INKINEN, CONDUCTOR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자연스러운 음악성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적인 사운드" – <그라모폰> 지

피에타리 잉키넨은 KBS교향악단의 제9대 음악감독으로 2022년부터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잉키넨 음악감독은 핀란드 출신으로 2017년부터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 2025년 6월까지로 임기를 연장하였다. 2016년부터는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한 바 있다. 2022/23 시즌에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콘세트르헤바우 오케스트라,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북독일 방송 엘프필하모니 관현악단, 슈투트가르트 남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및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의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그는 202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발퀴레>를 지휘한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다. 앞서 호주 멜버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막 공연을 성황리에 지휘한 그는 이 공연으로 2014년 헬프만 어워드와 2016년 그린 룸 어워드에서 최고의 오페라 지휘자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핀란드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젬퍼오퍼,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라 모네 극장,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뮌헨 국립 극장 등에서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였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들과 핀란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3부작 연주 음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그의 지휘 아래 테너 사이먼 오닐과 함께한 바그너의 아리아들과 관현악곡 앨범, 요하네스 모저와 함께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제1번과 브리튼의 첼로 교향곡 음반도 주목할 만하다.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바그너의 지그프리트 발췌곡, 프로코피예프와 드보르작의 교향곡 음반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 피에타리 잉키넨 감독은 쾰른 음악원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자카르 브론을 사사하고, 이후 헬싱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수학하였다.

@pietariinkinen
facebook.com/PietariInkinen
pietariinkinen.com



©BjoernKadenbach

ANNA VINNITSKAYA, PIANIST

피아노 | 안나 비니츠카야

"그녀의 소리가 품은 순수한 아름다움과 풍부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BBC 뮤직 매거진>

무대 위의 안나 비니츠카야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유의 아우라에 단숨에 사로잡히고 만다. 화려한 불꽃놀이를 연상키도 하고, 마치 광활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것 같은 그녀의 테크닉은 그 자체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표현의 수단일 뿐이기에 늘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사운드와 어우러진다. 그녀는 음악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우리 시대 주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다.

비니츠카야는 2007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안드리스 넬손스, 발레리 게르기예프, 크쥐스토프 우르반스키, 드미트리 키타옌코, 앨런 길버트, 미르가 그라지니테-틸라 등 정상급 지휘자들과 작업하며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활발한 호흡을 맞추고 있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첫 협연 이후 재초청이 쏟아졌고, 최근 마렉 야노프스키의 초청으로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상주음악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베를린 필하모니, 빈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산토리홀을 비롯하여 콜른, 에센,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 뮌헨, 함부르크 등의 세계의 주요 공연장에서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디아파종 도르,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등 다수의 음반상을 수상한 그는 2021년 발매한 쇼팽 앨범 역시 극찬을 받았다. 그 밖에도 크쥐스토프 우르반스키의 지휘로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라흐마니노프 음반과 예브게니 코롤리오프, 룹카 하지 게오르기에바, 포츠담 체임버 아카데미와 함께 한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 등 다수의 음반을 발매했다.

안나 비니츠카야는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태생으로 라흐마니노프 국립음악원에서 세르게이 오시펜코를 사사했으며, 이후 함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예브게니 코롤리오프를 사사하였다. 2009년부터는 함부르크 국립음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라흐마니노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43
S. Rachmaninoff |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43

작곡연도	1934년
초 연	1934년 11월 7일, 미국 볼티모어
편 성	피콜로, 플루트2, 오보에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튜바, 팀파니, 글로켄슈필, 서스펜디드 심벌, 큰북, 작은북, 트라이앵글, 심벌즈, 현5부
연주시간	약 22분

라흐마니노프의 여름 별장 '빌라 세나르'에서 탄생한 작품

지난 2023년 4월 1일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의 150번째 생일이었다. 이를 기념해 스위스 루체른 주의 헤르텐슈타인에 위치한 라흐마니노프의 여름 별장, 빌라 세나르(Villa Senar)가 오랜 준비 끝에 일반인 대상 관람 프로그램을 열었다. 라흐마니노프가 세상을 떠난 후 이 빌라는 라흐마니노프 재단을 설립한 그의 외손자 알렉산더 라흐마니노프 코누스 등 몇몇 직계 가족 소유로 남았다.

지난 2012년 라흐마니노프의 예술 세계를 문화유산으로 지키던 일에 힘썼던 코누스가 세상을 떠나자, 유족과 엇갈린 입장을 고수하던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 빌라를 구입하려 나섰다. 하지만 결국 2022년 스위스 루체른 주가 유족 측으로부터 이 빌라를 매입했다. 이후 이 빌라는 루체른 주의 감독 하에 전문가, 건축가, 복원가에 의해 처음 라흐마니노프가 지었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누구나 이곳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예술적 영감과 그가 바라보던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빌라 세나르는 라흐마니노프가 토지 구입부터 건축 설계까지 참여한 특별한 공간이다. 그는 1932년 부지를 매입했고, 당시로서는 새로운 건축 스타일이던 바우하우스 양식을 고집했다. 이렇게 완성된 이 빌라에서 그의 가족은 1933년부터 1939년까지 매 여름을 보냈다. 때때로 라흐마니노프가 사랑했던 작가 이반 부닌,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등도 초대했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빌라에서 다양한 예술적 영감을 얻었고, 여러 작품을 구상했다. 오늘 연주되는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은 그가 이 빌라에서 보낸 첫 번째 여름휴가 때 탄생했으며, 이후 <교향곡 제3번>의 구상과 완성도 이 빌라에서 마쳤다.

로맨티시스트 라흐마니노프

라흐마니노프가 여름 별장 '빌라 세나르'를 지은 까닭은 아내 나탈리아 사티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그의 아내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바노프카의 여름 별장을 무척 그리워했다. 아내의 서운함을 달래려 라흐마니노프는 이바노프카 별장을 모티프로 이 빌라를 지었다. 이 공간은 그 이름에도 라흐마니노프의 사랑이 깃들어있다. 빌라 세나르(Villa Senar)는 세르게이의 Se, 나탈리아의 이니셜인 Na, 라흐마니노프의 R을 적절하게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 빌라 세나르는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그리고 지휘자였던 그가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추억하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기를 초월해 사랑받는 악마의 변주곡

1934년 11월 7일 미국 볼티모어의 리릭 오페라 하우스에서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초연했다. 물론 라흐마니노프가 피아니스트로 함께했다. 당시 이 작품은 그가 발표한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큰 호평을 받았다.

작품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 이 작품은 전설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에게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피아노 협주곡 형식의 관현악곡이다. 라흐마니노프는 파가니니가 작곡한 <24개의 카프리스> 가운데 24번째 선율을 주제로 변주곡을 썼다. 이미 라흐마니노프 이전에도 파가니니의 선율에 매료되어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발표한 작곡가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연습곡>, 요하네스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이다. 무성한 베일에 쌓여있던 파가니니의 삶과 음악은 작곡가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작품을 하나의 악장으로 구성했다.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서곡부터 10번 변주까지, 11번 변주~18번 변주, 19번 변주~24번 변주까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 그는 이 작품의 첫 부분에 전체 변주의 중심이 되는 파가니니의 주제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지 않았다. 전체의 주제가 등장한 이후 등장하는 변주들로 이어지는 기존의 변주곡 양식에서 벗어난 일이다. 그는 이러한 작은 변화 혹은 상식을 깬 형식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작품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변주는 18번째 변주로,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악기로 편곡되어 독주 레퍼토리로도 인기가 좋다.

크렘 드 멘트 변주곡

라흐마니노프는 타고난 피아니스트였다. 2미터에 가까운 키에 손의 너비가 한 옥타브 반 정도를 짚을 수 있는 큰 손을 타고났다. 하지만 어떤 천재도 노력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말을 증명하듯 실제로 그는 연습에 매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의 아내는 라흐마니노프가 종종 잠옷 차림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마음에 들 때까지 밤샘 연습을 하곤 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하지만 그에게도 해결하기 어려운 곡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다. 특히 그는 높은 음역의 음들이 빠르게 도약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흐마니노프는 종종 "관객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직 나쁜 연주자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완벽한 연주를 추구했다. 그의 고충을 듣던 후배 피아니스트 베노 모이세비치는 당시 절대금주주의자였던 라흐마니노프에게 달콤한 초록빛 술, 크렘 드 멘트 한 잔을 권했다. 처음에는 금주 의지를 꺾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졌다. 놀랍게도 그는 보드카와 박하로 숙성한 이 술을 마신 후 어려워했던 고음 부분을 초연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연주했다. 이후 그는 이 곡을 연주하기 전 반드시 크렘 드 멘트 한 잔을 마셨다. 때문에 이 작품은 '크렘 드 멘트 변주곡'이라고도 불린다.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e단조, 작품27

S. Rachmaninoff |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작곡연도	1906-1907년
초 연	1908년 1월 2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편 성	플루트3(피콜로 겸함), 오보에3(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2,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 큰북, 작은북, 심벌즈, 글로켄슈필, 현5부
연주시간	약 52분

모차르트 서명 악보의 두 배 가격에 낙찰된 라흐마니노프의 유품

지난 2004년 영국의 소더비 경매에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의 아주 특별한 악보가 등장했다. 총 320페이지 분량의 이 악보는 그가 직접 초연을 위해 사용했던 자필 악보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그가 남긴 예술적 유품인 셈이다. 특히 이 교향곡은 그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걸작이기에 더 큰 화제를 모았다. 악보는 여러 색의 연필과 검은 잉크를 사용한 펜을 사용해 그가 수정한 흔적들로 가득하다. 심지어 기존 작품 악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까지 발견되었다. 그가 기록한 음표와 지시 사항, 명료한 필체 등은 어느 누가 보아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표기되어 있다. 그의 평소 작곡 표기 양식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자료다.

하지만 경매 소식을 들은 라흐마니노프의 후손 측은 악보의 소유권을 강력히 주장했다. 1908년 1월 26일 마린스키 극장에서 알렉산더 실로티의 지휘로 이 작품이 초연된 후 감쪽같이 사라졌던 원본의 행방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소더비 경매에 이 악보 판매를 부탁했던 익명의 재력가는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 이후 타버 재단이 소더비의 비공개 경매를 통해 이 악보를 구매했다. 낙찰 금액은 약 50만 파운드(한화 약 8억원)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 악보는 영국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었다. 이렇게 10년의 세월 동안 존재 자체의 소식만 전했던 이 악보는 10년 후 다시 경매에 등장했다. 두 번째 경매에는 모차르트의 친필 서명이 된 악보를 포함해 베토벤과 로시니의 악보도 등장했다. 하지만 그 어떤 악보도 <교향곡 제2번> 악보만큼 높은 가격으로 팔리지 못했다. 익명의 재력가는 약 120만 파운드(한화 약 20억원)에 이 악보를 샀다.

두 번의 행운을 안겨준 라흐마니노프의 걸작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작곡가로 추앙받는 미하일 글린카. 그의 이름을 딴 '글린카 상'은 러시아의 빼어난 작곡가를 격려하는 상이다. 라흐마니노프는 1904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1908년 <교향곡 제2번>으로 무려 두 차례나 글린카 상을 받았다. 그가 <교향곡 제2번>을 작곡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값진 훈장이다. 또한, 이 곡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세르게이 타네예프에게 헌정되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그는 복잡한 상황에 처한 러시아를 떠나 독일의 드레스덴으로 이사했다. 러시아에서 황실 오페라의 지휘자로 일하느라 평소 작곡할 시간이 부족했던 그는 3년간 드레스덴에서 거주하며 작업 시간과 기회를 스스로 만들었다. 여름에는 이바노프카에 있는 여름 별장을 오가며 지냈다. 이 시기 그는 <교향곡 제2번>, <죽음의 섬> 등을 작곡했다.

<교향곡 제2번>의 연주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다. 1940~50년대에는 곡의 규모를 축소하여 편곡한 버전으로 자주 연주되곤 했다. 오늘 KBS교향악단 제790회 정기연주회에서도 일부를 커트한 버전이 연주된다. 총 4악장 구성이며, 각 악장은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효과적이고 화려한 색채가 돋보인다. 특히 셋잇단음표 리듬으로 표현되는 라흐마니노프만의 방식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특징이다.

굳게 닫았던 마음과 놓아버렸던 용기

1897년 3월 27일 그가 처음 발표한 <교향곡 제1번>은 초연과 동시에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그는 이 충격으로 복잡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피아니스트와 지휘자로서 무대에 오를 수 있었지만 유독 작곡만은 할 수 없었다. 역설적인 상황에서 방황하던 그는 자신을 자책했다. 자연스레 신경쇠약과 우울증이 그를 찾아왔다. 그를 몹시 걱정하던 가족들은 저명한 정신과 의사 니콜라이 달 박사의 치료를 권했다. 당시 달 박사는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던 최면 치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달 박사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단원으로 무대에 올랐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라흐마니노프와 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의사였다. 훗날 달 박사는 알렉산드르 스크랴빈과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진료도 맡았다.

달 박사는 최면 요법과 기타 여러 보조 요법을 라흐마니노프의 치료에 사용했다. 3개월 동안 매일 달 박사의 연구실에 방문한 그는 안락의자에 누워 최면 치료에 따랐다. 달 박사는 최면 상태의 라흐마니노프에게 작곡가로서의 열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치료를 통해 라흐마니노프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이끌어냈다. 결국 그는 기적처럼 다시 작곡을 시작했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오늘 연주되는 <교향곡 제2번>이다. 달 박사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 그는 이 작품을 그에게 헌정했다.

이후 그는 교향곡, 관현악곡, 협주곡, 실내악, 독주, 오페라, 합창, 가곡까지 당시 작곡가가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작품을 부지런히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가 발표하는 작품들이 환영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처음처럼 상심하지 않았다. 그저 처음 듣는 작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재치 있는 말로 상황을 넘겼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근 100년이 되어가지만, 그의 수많은 작품은 지금도 쉴 새 없이 무대와 무대 밖에서 흐르고 있다. 결국 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글 | 정은주 (음악 칼럼니스트, 『알아두면 쓸모 있는 클래식 잡학사전』 저자)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피아니스트 안나 비니츠카야가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YouTube KBS교향악단

우리가 라흐마니노프를 사랑하는 이유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은 꽤 유명한 편입니다. 작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등을 거머쥐며 세계 음악계를 뒤흔든 임윤찬이 결선에서 연주했던 곡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이었죠.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마주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육중한 음량을 뚫고 또렷이 들려야 하는 무수한 음표들, 그것을 연주하는 데에 필요한 손가락의 민첩함과 근력, 드넓은 음역대를 가로질러야 하는 팔과 어깨의 유연성, 이러한 육체적 활동을 30분, 40분 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지구력 등등.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한다는 것은 음악이 마냥 우아한 정신적 활동만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죠. 그것은 육체의 고된 노동을 요구하기도 하는 일인 것입니다.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고서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피아니스트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땀이 의미하는 것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신체의 부단한 움직임의 결과물이라는 점도 잘 아실 테지요.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이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게 된 것은 라흐마니노프가 작곡가이기 이전에 그 자신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의 손가락은 매우 길었고, 손의 크기도 남달랐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C-E♭-G-(한 옥타브 위)C-G음을 한꺼번에 누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성인 남자인 제 왼손을 아무리 찢어도 10도(C에서 한 옥타브 위 E) 간격의 두 음을 간신히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흐마니노프의 손은 무려 12도, 그것도 다섯 손가락으로 완전한 3화음을 짚을 수 있었다고 하니, 그는 이미 피아니스트로서 남다른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작곡가로 입지를 다지기에 앞서, 그는 이미 세계를 누비며 연주하던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 혁명이 발발하자 그는 미국으로 망명했고, 그때부터 그는 코스모폴리탄의 삶을 사는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라흐마니노프는 파가니니, 리스트, 쇼팽 등의 계보를 잇는 19세기 비르투오소 문화의 계승자였습니다.

이 비르투오소들은 모두 비범한 연주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연주할 음악을 직접 작곡하는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연주력은 인간의 한계치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 유럽에 콘서트홀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이들의 무대는 오늘날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방불케 했죠. 청중들은 이들의 연주를 '경이로움'으로 지켜보았고, 화려한 테크닉으로 무장한 이들의 연주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닌 '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인간이라면 팔은 두 개고, 손가락은 열 개일 터인데, 이들의 음악은 마치 세 개의 팔을 가진 사람이 서른 개, 마흔 개의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중들은 이들의 음악에서 인간이 성취한 인간 이상의 능력을 보고, 들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19세기부터 시작된 비르투오소 전통의 끝자락에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20세기 중반까지 유럽 대륙에서는 '새로움'을 향한 시도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썼던 1909년과 비슷한 시기에 쇤베르크는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달에 홀린 피에로>에서 무조음악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었고, 스트라빈스키 역시 원시적인 리듬의 향연인 <봄의 제전>으로 파리의 샹젤리제 극장에 한바탕 파란을 일으켰죠. 쇤베르크나 스트라빈스키 같은 작곡가들이 음악의 전면에 내세운 '모던함'에 비해,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은 19세기의 전통을 잇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음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그의 음악은 '시대에 맞지 않게 과거를 헤매는 음악'이라는 오명이 씌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평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20세기에 들어서도 작곡가들은 새로움과 익숙함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은 어느 정도의 '타협'을 전제로 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움이냐, 익숙함이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였지 미학적 우월함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청중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쇤베르크나 스트라빈스키 같은 급진적인 방식으로 과거의 전통을 전복시키는 것은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적인 요소를 전면에 내세워서 익숙함과 새로움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는 것도 그의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민족주의는 그의 관심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는 20세기의 코스모폴리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였죠. 많은 청중의 환호를 유도하는 것은 그의 음악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올해는 라흐마니노프의 탄생 150주년입니다. 라흐마니노프만큼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콘서트홀 문화의 표준 레퍼토리 속에서 꾸준히 연주된 작곡가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선율, 강렬한 표현력, 청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명인기. 그의 음악이 오늘날까지 콘서트홀의 인기 레퍼토리가 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흐마니노프 현상을 만들어낸 것은 그 음악에 꾸준한 갈채를 보내온 우리들, 바로 콘서트홀의 청중들일 것입니다.

글 | 정이은(음악학자,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전임연구원)



2023 KBS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한여름 밤의 꿈

2023.6.17(SAT) 20:00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유신혜(바이올린) | 임정연(바이올린) | 박재롬(비올라) | 김우진(첼로) | 이창형(더블베이스)
박진오(클라리넷) | 이원석(퍼커션) | 매튜 에른스터(퍼커션)

공연 상세정보 보기

티켓 Ⓡ 5만원 Ⓢ 3만원 Ⓐ 1만원 예매 INTERPARK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K-CLASSIC SPOTLIGHT SERIES



© JINO PARK / MOC

6. 30.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협연
박수예
(바이올린)
이혁
(피아노)

작곡가
이수연

K-클래식 스포트라이트 시리즈

2023. 6. 30. (FRI) - 7. 1. (SAT)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7. 1.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협연
심준호
(첼로)
박재홍
(피아노)

작곡가
김신



© ROH

공연 상세정보 보기

예매 LG ARTS CENTER SEOUL | 1661-0017 INTERPARK티켓 | 1544-1555

티켓 Ⓡ7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주최·주관** KBS교향악단 **문의** 02-6099-7400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의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의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한창록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악장 * 부악장 ** 수석 + 부수석 ++

제1바이올린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황선민 박서현 최여은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이도용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아란+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박진오+ 손한요++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이윤호++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장세나 Matthew Ernster 임예지
하프	김서원

객원단원

제1바이올린	Juraj Cizmarovic* (WDR Sinfonieorchester Köln)
	지상희 *
클라리넷	이승훈++
호른	Michal Emanovsky+
트롬본	Ronald Prussing+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이한신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사원** 손명조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대리** 이미라 **주임** 김민중 **사원** 임상아 서영재 이부윤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정의 유연철 **과장** 박연선 **주임** 박태균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재)KBS교향악단 신규직원 채용

국민의 오케스트라를 함께 이끌어 갈 주역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부문 : 사무국 경영관리팀(정규직)
· 접수기간 : 2023.5.8(월) ~ 6.4(일) 18:00